



저는 이경민 수녀 합니다. 저는 유아 때 세례를 받았고 금년에 수도생활 4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사랑의 씨튼 수녀회를 알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성요셉 여중고 교사로 지원하여 면접 때 매리 아녜스 수녀님, 말린수녀님, 이신자 수녀님을 만나서입니다. 이 때 이신자 수녀님께서 제가 교사가 아니라 수녀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1976년 성요셉여학교 국어교사가 되었고 2년 동안 근무한 후 수녀회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성요셉여중고 교사로, 매리 아녜스 수녀님 다음으로 2대 교장을 지낸 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학교에 영어회화를 가르치러 오신 미국 관구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후 한국 관구의 50년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미국 씨튼 힐에서 약 2년간 지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관구 고문서실에 자주 갔으며 사랑하는 많은 미국 관구 수녀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곳에서 미국 관구 수녀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제 수도 여정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씨튼힐 언덕, 특히 저의 영혼의 멘토인 매리 아그네스 수녀님 묘지 옆에 앉아 그린스버그 대성당을 바라보았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광주대에서 한국문학을 1년간 가르쳤고 2001년 중국에 파견되어 언어연수 후 2002년부터 연길 <서광의 집> 원장으로, 또 연길 과학기술대 한국어 강사로, 산둥성 청도 빈해대학 한국어 교수로 총 8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해인 2011년부터 부천 소명여고 교장으로 4년을 보냈고 퇴임 후 2016년부터는 전주교구 용머리 성당의 전교수녀로 있습니다. 본당 수녀는 성요셉여학교에 근무하던 중 잠시 휴직을 하고 광주 학운동성당에서 2년 동안 사도직을 한 적이 있어 두 번째가 됩니다.



제가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때고 대학생 때는 대학신문 기자로 2년 동안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수녀회 입회한 후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좇아 많은 시를 썼고 1991년 93편의 시를 수록한 <나무와 새와 십자가>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수도자로서 저는 시가 하느님께 닿을 수 있는 통교의 사다리이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해의 문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는 저의 삶의 거울이며 저의 기도이고 제가 힘들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시를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을 전하도록 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실 때면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I am Sister Lee Kyong Min. I was baptized as a baby and I have been a religious for 40 years. When I graduated college I had an interview with Sisters Mary Agnes, Marlene, and Shin Ja to be hired as a teacher at St. Joseph School. Later I heard that Sr. Shin Ja told the Sisters that it would be better to have me as a Sister than as a teacher. In 1976 my work as a Korean language teacher began and it lasted for two years until I entered the community. Since then I taught and later was appointed as principal to succeed Sr. Mary Agnes. In those days we had several American Sister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the students at St. Joseph. It was such a joy!

I moved to the USA in 1999 and stayed at Seton Hill for two years to write the fifty year history of the Korean Province. The happiest memories while staying there were visiting the Archives, having conversations with US sisters and being loved by them. This is the unforgettable, peaceful, and happiest memory of my religious life. I used to sit by the grave of Sr. Mary Agnes, my forever mentor, looking at the Greensburg Cathedral. I still miss those times. Coming back to Korea, I taught Korean Literature for one year at Gwangju University, and then I was missioned to China to work as director of the Sunrise House at Yanbian. While staying for 8 1/2 years in China I also taught Korean at Yanbian Advanced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Qingdao Binhai University. In 2011 when I returned to Korea I worked as a principal for 4 years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After retiring from teaching in 2016 I was missioned to work as a parish sister at Yongmeori Catholic Church in Jeonju diocese. This is my second parish ministry experience. My first one was at Hakundong Parish in Gwangju Archdiocese. I worked there for two years during my two years of administrative absence of St. Joseph School.



Now, I will tell you about my career as a poet. Since high school, I have been writing poems. I used to write newspaper articles while at university. Since entering community, I have written poems inspired by God, and a collection of 93 poems entitled “Tree, Bird, and Cross” was published.

For me, as a religious, writing poetry is the ladder of communication to help me understand God more deeply and be closer to Him. My poems are a mirror of my life, my prayer, and my refuge in times of trial. I am gifted to be a poet, and I often believe God asks me to reveal Him to others through my poems. To

write a poem is not easy at all, however, whenever God gives me inspiration I write poems with gratitude.

